

“공무직도 악성 민원 힘들어...민원대응팀 중단하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학교 현장 사정 모르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은 16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민원대응팀’이 교육공무직에게 악성 민원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옥박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초초 사망 교사 사건 등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가 법제화

된다.

이번 시안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팀을 구성해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비노조는 “학교 현장 사정을 모르는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이라고 교육부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학비노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민원 및 갑질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61.5%의 교육공무직들이 관리자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교내에서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어도 학교장 및 중간 관리자와 의논해 해결하는 경우는 단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비노조 측은 “힘없는 약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교무실,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과 옥박이가 돼라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주체들과는 상의도 없이 교육공무직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옥박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택배 없는 날’ 끝나자 분주한 택배기사

‘택배 없는 날’ 연휴가 끝난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남권물류센터에서 한 택배기사가 휴무일 쌓인 택배상자를 정리하고 있다.

‘BTS 무단 사용’ 제작·유통 일당, 세관에 검거

BTS(방탄소년단)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11만장에 달하는 마스크팩을 제작,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할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범인대표 A(50대)씨와 B(50대)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께 상표권자인 썬하이브의 상표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해 화장품 마스크팩 11만장(3억 규모)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TS 얼굴이 새겨진 마스크팩 10만장을 제작한 후 해외 바이어를 통해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했다. 이후에도 B씨는 2021년 4월께 마스크팩 제조업자 C씨와 공모해 1만장을 추가로 제작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BTS 마스크팩 생산사실을 알게 된 썬하이브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는 2020년 6월 내용증명을 보내 마스크팩의 제조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억5000만장(6250억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추가로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세관당국의 압수수색 결과, 확인됐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충전기 및 케이블 7만9000여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관세법·상표법 위반)를 받는 업체 대표 D(30대)씨도 검



찰에 넘겨졌다.

D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중국의 오피마켓 쇼핑몰에서 알게 된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4000원 가량으로 전달받아 구입 가격의 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적발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돼 정품으로 인식되던 위조 위조 ‘BTS 굿즈’의 대량 생산 및 수출을 사전에 차단해 BTS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